

# 한국어 동사 ‘들-(入)’의 통시적 변화에 대하여

언어학과의 통섭\*

성 은 실\*

## I. 서론

본고는 한국어 동사 ‘들-(入)’의 형태, 통사·의미적 특징을 통시적 변화 과정을 바탕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들-’은 한국어의 기본 동사 중 하나로 중세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어형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매우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 다의어<sup>1)</sup>라서 “경계 외부에서 내부로 이동

---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1) 한 어휘소(즉 한 가지 기호)가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이 어휘소를 다의어(polysemant/polysemic word)라고 한다(이익섭 2000: 180). 그리고 이 어휘소가 가지고 있는 여러 의미들 사이의 관계를 다의관계(polysemy)라고 한다. 즉, 다의관계는 한 어휘의 유연성을 지닌 둘 이상의 복합적 의미관계라고 할 수 있다(임지룡 1992: 211).

하나의 기호가 여러 의미를 가진다고 하면 동음어(homonym)도 떠올리게 되는데, 동음어는 그 의미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다의어와 달리 의미들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의어와 구별된다. Taylor(1995: 105)는 다의어와 동음어를 구별하는 기준을 공유하는 ‘의미핵’(meaning core)의 유무라고 보았다.

하지만 다의어와 동음어를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임지룡(1992: 231-233)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동음어의 범위를 축소시켜 다의어의 개념으로 설명하려는 라이온스의 논의도 있고, 다의어의 개념을 극히 제한하여 사용하고 대부분은 동음어로 설명하려는 켈슨의 논의도 있다. 예를 들어 박영순(1994: 241-243)은 현재 사전들이 다의관계로 다루고 있는 ‘들다’(入)의 여러 의미들을 크게 여섯 의소로 나누고 이를 의미상 유연성에 따라 분류하여 서로 다른 다섯 개의 동음어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지룡(1996: 241)에 따르면 인지의미론에

한다”는 원형적 의미로부터 다양한 의미가 확장되어 나왔다. 본고에서는 ‘들-’의 파생어, 합성어 형성과 관련된 형태론적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고, ‘들-’과 결합하는 어휘에 따라 확장되는 ‘들-’의 의미에 대하여 논할 것이다. 특히 ‘들-’의 주어가 부정체언이어서 ‘들-’이 실제 이동과 무관한 추상적인 의미로 쓰인 경우에 주목하여 논의를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다.

## II. ‘들-’의 형태적 특징

‘들-’은 중세국어에서 “入”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들-’은 기본적으로 자동사로, 사동접사 ‘-이’와 결합해 사동사 ‘드라’를 형성한다. 또한 자동사임에도 불구하고, 피동사 ‘들이’가 존재한다. ‘드라’는 후에 ‘들이’로 변했고, ‘들이’는 ‘들라’로 변했다.

### 1. 사동사 ‘드라-’[HL/HH/LL]

‘들-’의 사동표현은 장형 사동으로도 나타나고, 사동사 ‘드라’에 의한 단형 사동으로도 나타난다. (1)은 장형 사동으로 실현된 사동표현의 예이고, (2)는 사동사 ‘드라’에 의한 단형 사동으로 실현된 사동 표현의 예이다.

- (1) ㄱ. 샅리 부러 머릿 골슈에 들에 흐라 누네 놋드리 나면 도흐리라 (敎簡 2:2b)  
 ㄴ. 국왕이 출성흔 후의야 다시 궐년의 들게 흐고 세즈와 대군만 북녁흐로 드려가리니 <산성일기 108>  
 ㄷ. 그 善知識이 能히 佛事<sup>흐야</sup> 利益 드외며 깃븐 이를 ㄱ르쳐 𑖀야 阿耨多羅 三藐三菩提에 들에 흐느니(當知善知識者是大因緣, 所謂化導令得見佛, 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 법화(60c) <釋詳 21:45b>)
- (2) ㄱ. 비록 설한이라도 히여곰 질 아릭 드리디 말고 흐르 흔 번식 들려 그 술

서는 다의어를 최대화하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본고 또한 이 입장을 따르고자 한다.

로 혀어곰 열케 혀면 물이 시러곰 경실혀어 치위를 건티느니라 <馬經上 42b>

- ㄴ. 鐵圍山 쓰시에 이 經을 밍ᄃ라 龍宮에 드러 뒷거늘 龍樹菩薩이 龍宮에 가 보고 외와 가져와 世間에 流傳히니라 <月釋 4:46b>
- ㄷ. 집의 오니 가마를 사랑문으로 드리고 선인이 받을 드르시는데 도포을 넘으시고 붓드러 너오시며 축적불안 히시고 너 부모를 붓드러 눈물이 절노 흐르를 금치 못히느니라 <한중록 22>

(1ㄱ)은 “머리의 골수에 들어가게 하라”는 의미이고, (1ㄴ)은 “궁내에 들어오게 하고”의 의미이다. 즉, (1ㄱ, ㄴ)은 구체적인 이동의 의미가 드러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ㄷ)은 “이누다라 삼막삼보리에 들게 하니”의 의미이다. ‘阿耨多羅三藐三菩提’는 “수행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부처님의 최상의 지혜, 지덕”을 의미하므로 여기서의 ‘들게 하니’는 실제적인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즉 추상적으로 “어떤 경지에 도달하게 하다”라는 의미로 ‘들게 하다’를 사용한 것이다. (2ㄱ)은 “집 아래 들이지 말고”의 의미이고, (2ㄴ)은 “경을 만들어 용궁에 들어 두었는데”의 의미이고, (2ㄷ)은 “가마를 사랑문으로 들이고”의 의미이다. 구체적인 “이동”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것은 (2ㄷ) 정도이지만 모두 구체적인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사동사 ‘드라’는 (3)과 같이 ‘들어’로도 나타났다.

- (3) ㄱ. 만일 或 보내디 몬혀야시면 몬져 입에 들이디 아니히더라(若或未審면 丕 先入口하더라) <小學6:71a>
- ㄴ. 다 李氏의 庫에 들이고 스절의 讎화 줌을 李氏 스스로 ᄃ음알아 히더니 이근티 흠이 슌 남은 히러라 (攄入李之庫히고 四時分賚를 李氏自裁之히더니 如此 | 二十餘歲러라) <小學6:87b>

(3ㄱ)은 “먼저 입에 들여놓지 않더라”의 의미이고, (3ㄴ)은 “다 이씨의 창고에 들이고”의 의미이다. (3ㄱ, ㄴ)은 모두 구체적인 움직임을 설명하고 있다. ‘드라’가 ‘들어’로 나타난 것은 과잉분철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현대국어에 이르러 ‘들’의 사동사는 형태가 ‘들어’로만 나타나게 되었으나 그 실현 양상에는 변함이 없다. (4), (5)가 그 예이다.

- (4) ㄱ. ??초대장이 없는 사람은 행사장에 들게 하지 마라.  
 ㄴ. 저를 이 동아리에 들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ㄷ. 그를 5등 안에 들게 하는 것이 목표이다.
- (5) ㄱ. 아버님은 인사를 드리러 온 제자들을 사랑방에 들이면서 무척 기뻐하셨다.  
 ㄴ. 따뜻한 별을 이쪽으로 들이려면 창을 더 넓혀야 합니다.  
 ㄷ. 손톱에 봉선화 물을 들이다.

그러나 (4ㄱ)에서 볼 수 있듯이 ‘들-’의 의미 변화로 인해 “구체적인 이동”을 나타내는 ‘들-’이 장형 사동으로 실현되면 다소 어색한 사동 표현이 된다. 오히려 “추상적인 범위 내에 포함되다”의 의미를 갖는 (4ㄷ)은 자연스럽다. (5)의 단형 사동 표현은 다양한 의미를 표현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 이는 ‘들-’과 ‘들이-’의 의미 변화 및 확장이 제각각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 2. 피동사 ‘들이-’[HL/LH]

‘들이-’는 보통 피동사처럼 사용된다. 이 때, ‘들이-’는 “병이나 귀신 따위가 들리다”의 의미이다. (6)이 그 예이다. 같은 의미로 ‘들-, ‘들리-’가 사용된 예도 발견되는데, 현대국어에 이르러서는 ‘들리-’가 일반화되었다.<sup>2)</sup> (7)은 같은 의미로 ‘들-’이 사용된 예이고, (8)는 ‘들리-’가 사용된 예이다.

- (6) 즈으롭 신 들연 너무 자다가 괴운을 일허든 집 보 우헛 들글을 곳굼기 불오  
 또 석우핳 글을 고힐 ㅼㄹ라(魔睡強眠失氣) 〈敎簡 1:85a〉

2) 현대국어에 이르러서도 ‘들리다’와 ‘들다’의 용법에는 모호한 부분이 있는 듯하다. 국립국어원에 ‘감기가 들리다’와 ‘감기가 들다’의 차이를 묻기도 한다고 한다. 국립국어원은 그에 대해 “‘들다’는 ‘몸에 병이나 증상이 생겼다.’의 뜻을 나타내는 말로, ‘들리다’는 ‘병이 걸리다’의 뜻을 나타내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감기가 들어 요즘 병원에 다니다./감기가 들리다’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들다’의 어간 ‘들-’ 뒤에, 곧 일어날 움직임이나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려고’를 붙여 ‘감기가 들려고 한다.’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라고 답하고 있다. 하지만 이 답만 보아서는 ‘감기가 들려서 병원에 다닌다’는 표현이 잘못된 것이라는 말인지 옳은 것이라는 말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 (7) 여덟차힌 모딘 藥을 먹거나 ㄴ오를 굴이거나 邪曲 혼 긋거시 들어나 ㅎ야 橫死 흘씨오(八者橫爲毒藥厭禱 咒咀起屍鬼等之所中害) 〈釋詳9:37b〉
- (8) ㄱ. 빈 방 안에 혼자 우뚝 서서 도깨비 들린 듯이 혼자 말로 두런거리며 습의 하고 하는 말이 〈裊裊將傳 雍固執傳〉
- ㄴ. 안평왕이 병이 들러 서천 들러가서 일영주를 어더다가 부왕에 병을 구했신 니 그 안니 충신이며 이 안이 효자일가 〈水宮繫主簿山中兔處士傳〉

(6)은 “졸음신 들려서 너무 자다가…”라는 의미이고, (7)은 “사곡한 귀신이 들거나/들리거나”의 의미이다. (8)은 현대국어와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 (6)의 한문 부분을 보면 ‘魔睡強眠’은 “수마가 강제로 잠자게 하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들이-’에 해당하는 한자는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한문에는 ‘들-’과 관련된 표현이 없는데, 우리말로 번역 하면서 ‘들-’의 피동사로 표현하는 것은 귀신이나 병마에 대한 당시 한국 사람들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귀신이나 병마가 내 몸의 경계 밖에서 나를 조종한다기보다는 내 의지와 무관하게 경계를 넘어 내 몸 속으로 들어와 나의 통제를 벗어난 어떤 것을 하게 만든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표현은 현대국어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들이-’가 ‘들-’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 예도 발견되는데, (9)가 그 예이다.

- (9) ㄱ. 아츨 비치 뉘부우리로 혼 창이 들어닐 주근 ㄷ시 자다가 헨 갓웃 두퍼서 놀라오라(朝光入甕牖/ 尸寢驚弊裘) 〈두해초 22:1〉
- ㄱ'. 아츨 비치 뉘부우리로 혼 창이 들어닐 주근 ㄷ시 자다가 헨 갓웃 두퍼서 놀라오라 〈杜重22:1a〉

(9ㄱ)은 “아침 빛이 독 부리로 만든 창에 들어오니”<sup>3)</sup>라는 의미이다. (9ㄱ')에서 ‘들여닐’로 나타나던 것이 (9ㄱ')에서 ‘들어닐’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3) ‘뉘 부우리로 혼 창’은 “매우 가난한 집”을 형상화한 것이다.

### 3. 합성동사

‘들-’은 다양한 합성동사 형성에 참여한다. ‘들-’이 선행요소로 참여하는 예로는 ‘드러가-, 드러오-, 드러왔-, 드러서-, 드리쉬(吸), 드리비취-, 드리티-, 드리혀-’ 등이 있고, 후행요소로 참여하는 예로는 ‘나들-/나들-, 주러들-, 넘나들-, 밤들-’<sup>4)</sup> 등이 있다. 그 외에 ‘드나들-/드나들-’은 특이하게 ‘들-’이 ‘나-’의 전후에 모두 결합하여 합성동사를 형성하고 있다. 현대국어에 들어서는 이보다 더 많은 수의 동사들을 ‘들-’ 참여 합성동사로 인정하여 사전에 등재하고 있다.

#### 1) ‘드나들-/드나들(出入)’[HLH/LLH]

‘드나들-/드나들-’의 내부 구조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유창돈(1971)은 ‘드나들-’을 ‘들나다(入出)’의 강제형이라고 파악하였다. ‘드나들-’을 ‘드나들-’로 쓰게 되면서, ‘-들-’이 ‘들(入-)’의 뜻으로 견인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선영(2006)에서 지적된 것처럼 ‘드나들-’은 [들+나+들-]로 분석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sup>5)</sup> 기존에 ‘나들-’<sup>6)</sup>이라는

4) ‘밤들-’은 『우리말큰사전』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등재되어 있다. 다만 그 쓰임이 오래 되었으므로 ‘합성동사’로 보았다.

5) ‘들-’과 관련된 명사 중 하나인 ‘나드리’를 살펴보면, [나 + 들 + -이]의 내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나고 들다(出入)”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었지만 “외출”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었다. 근대국어부터는 ‘나들이 가다’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만약 ‘나들-’이 “외출하다”의 의미로 인식되었다면 ‘나들-’ 앞에 ‘들-’이 결합하여 ‘드나들-/드나들-’이 된 것도 이해할 만하다.

6) ‘드나들-/드나들-’은 일회적인 출입이 아닌 “반복적 출입”을 의미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드나들-’이 “1. 어떤 곳에 많은 것들이 들어가고 나오고 하다. 2. 일정한 곳에 자주 왔다 갔다 하다. 3. 여러 곳에 자주 들어가고 나가고 하다.”라고 풀이되어 있다. 2, 3번 뜻풀이에 ‘자주 왔다 갔다 하다, 자주 들어가고 나가고 하다’라는 구절이 있어 ‘드나들-’에 반복적 출입의 의미가 있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반복적 출입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하여 ‘나들-’에 ‘들-’을 덧붙이게 되었다고도 이해할 수 있다.

7) (1) ㄱ. 상네 光明이 알핀 나들 씨 禪이오(蒙山64b)

어형은 존재하지만 ‘드나-/드나-’라는 어형은 발견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 선영(2006)은 후행 ‘들’이 ‘덜’이 된 것은 ‘나-’의 모음의 영향이라고 보았다.

(10)은 ‘드나들-’로 나타난 예이고, (11)은 ‘드나들-’로 나타난 예이다.

- (10) ㄱ. 二十年을 상네 쯤 칙이더니 後에 서르 미더 드나드로물 어러이 아니 흐  
니 그 잇는 짜히 손지 本來서 고대 잇더니(二十年中常令除糞後相體信出  
 無難然 其所止猶在本處) 〈원각서 47b〉
- ㄴ. 賈餗은 제 쯤이 지브 드나드느 손을 집 담 스이에서 주구디 아디 흐  
 거니 내중내 부귀를 흐고져 흐덜 가히 득~~흐~~라(賈之臧獲이 害門客于牆廡  
 之間호디 而不知~~흐~~니 欲終始富貴~~느~~ 들 其可得乎아) 〈籲小 10:19a〉
- (11) ㄱ. 상네 물 타야 大闕 門에 드나들며 殿下와 흐가지로 交床에 앉느니 현마  
 崔沆 林衍이라도 이 곤디 몰더니이다(常騎馬出入宮門. 與殿下並據胡床  
 雖崔沆林衍. 亦未若此) 〈三綱 忠 32a〉
- ㄴ. 八歲어든 門戶에 드나들기과 및 듯괴 나아가 飲食 머글 제 반드시 어론의  
 後에 흐야 비로소 謙讓~~흐~~기로써 ㄹ~~르~~치며 〈家禮 2:24b〉

(10ㄱ)은 “드나드는 것을 어렵게 하지 않으니”라는 의미이다. 그런데 해당 한문을 살펴보면 ‘드나들-’에 해당하는 글자는 ‘出’이다. (10ㄴ)은 “집에 드나드는 손님”이라는 의미인데 한문에는 “門客”으로 나타난다. (11ㄱ)은 “대궐 문에 드나들며”, (11ㄴ)은 “문호에 드나들기와”의 의미이다. ‘드나들-’은 15세기 〈삼강행실도〉에서 최초로 나타나고, 19세기까지도 많이 사용되지 않다가 20세기에 들어 널리 사용되게 되었다.

## 2) ‘들+X’ 합성동사

‘들-’이 선행요소로 참여하고 있는 합성동사는 크게 ‘드러+X’인 경우와 ‘드라+X’인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드러가-, 드러오-, 드러났-, 드러서-’는 ‘드러+X’ 유형에 해당하고, ‘드리쉬-(吸), 드리비취-, 드리타-, 드리혀-’는 ‘드라+X’ 유형에 해당한다.

- ㄴ. 들쭈 눈 알쭈 五識이 बाट 도죽 드외야 門의 나들어든 第六~~意~~識이 도  
죽의 中媒 드외야 지빗 보빅를 아술사라 〈南明下1b〉

‘드리+X’ 유형의 합성동사는 ‘드리’ 자리에 ‘나.’(出)가 결합해도 모두 성립한다. 즉, ‘나가, 나오-, 나왔-, 나사-’와 쌍을 이룬다. 하지만 ‘드리+X’ 유형의 동사는 ‘드리쉬-’가 ‘내쉬-’와 쌍을 이루는 경우 외에는 ‘나.’ 계열과 쌍을 이루지 않는다.

‘드리타-, 드리혀-’의 ‘드리-’를 정말 ‘들-’의 의미를 가진 것인지는 고민해 보아야 한다. ‘드리/들이-’는 강세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드높다’나 ‘들이좋다’의 ‘드-’와 ‘들이-’는 모두 강세를 나타낸다. 하지만 본고에서 ‘들-’이 선행요소로 참여하고 있다고 제시한 합성동사들은 모두 “외부에서 내부로”라는 ‘들-’의 의미를 일부나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세의 ‘드리-’로 보지 않는다.

이 외에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들-’을 선행요소로 한 합성어에는 ‘들어차-, 들어맞-, 들이마사-, 들이밀-’가 있다.

### 3) ‘X+들-’ 합성동사

‘들-’이 후행요소로 참여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용언어간+들-’인 경우도 있고, ‘V어+들-’인 경우도 있고, ‘N+들-’인 경우도 있어 그 결합 양상이 다양하다.

‘나들-/나들-, 넘나들-’은 동사 어간끼리 결합하여 합성동사를 형성한 경우이다. 다만 ‘나들-/나들-’은 두 동사가 결합한 것이고 ‘넘나들-’은 세 동사가 결합한 것이다.

‘밤들-’은 명사와 ‘들-’이 결합한 예이다. ‘밤들-’은 고대국어 시기에 이미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처용가>에 ‘밤들이’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12)가 <처용가>에 나타나는 예이다.

(12) 夜入伊遊行如可 <처용가>

‘처용가’ 2행의 ‘夜入伊’는 대부분의 학자들에 의해 ‘밤들이/밤드리’로 해석된다. 이는 ‘밤이 깊도록’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밤들-’을 하나의 동사로 파악한다면 합성 동사 형성에 참여하는 ‘들-’의 의미가 ‘시간’을



나타내는 데까지 확장되었으며 고대국어 시기에 ‘들’의 의미가 이미 시간을 나타내는 데까지 확장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러들’은 [[줄+어+들]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동사이다. 이 동사를 하나의 합성동사로 파악해야 할지 통사적 구성으로 파악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을 내리기 힘들다. ‘들’을 보조동사라고 파악하는 편이 오히려 설명하기 쉬울 수도 있다. ‘들’의 의미를 다루면서 자세히 논하게 되겠지만, ‘들’이 ‘어 들’의 구성으로 사용될 때, ‘들’은 “축소, 감소”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주러들’도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들’을 후행요소로 한 합성어에는 ‘힘들, 뛰어들, 잠들, 병들, 끼어들, 몰려들, 모여들, 접어들, 스며들, 흘러들, 물들, 깃들, 기어들, 밀려들, 말려들, 잦아들, 걸려들, 정들, 날아들, 녹아들, 배어들, 숨어들, 타들, 먹혀들, 명들, 장가들, 길들, 철들, 수그러들, 오그라들, 공들, 돌아들, 오므라들, 편들, 죄어들-, 끌려들, 시중들, 역성들, 졸아들, 휘어들’ 등이 있다.

### III. ‘들’의 통사·의미적 특징

#### 1. ‘들’의 선행 조사

임흥빈(2006)에서는 현대국어 ‘들’의 의미를 16가지로 파악하고, 그 형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섯 개의 유형으로 구문을 분류하였다.

	격틀	의미	NP0	NP1	NP2	ADV
1	NP0이/가 들다	① 어떤 상태가 되다	가뭄, 흉년, 풍년, 한파			
		② 생각이나 느낌이 생기다	느낌, 마음, 생각, 예감, 정신, 걱정			많이

	격틀	의미	NP0	NP1	NP2	ADV
		③ 잠을 자다	잠, 선잠, 푹잠			깊이, 스르르
		④ 나이가 많아지다	나이, 연세			
2	NP1이/가 NP2에 들다	⑤ 안에 있다		고기, 사과, 구슬	어디, 그물, 병, 뺑	가득, 많이, 조금
		⑥ 밖에서 안으로 이 동하다		그	어디, 골목 길, 방, 집	
		⑦ 빛이나 색이 생기 다		그들, 햇볕, 단풍, 피명, (핏)물	하얀 바지, 집, 거실, 설악산	
		⑧ 어떤 일에 힘이나 비용이 필요하다		시간, 돈, 공, 노력, 힘	그 일, 사업	많이, 적게
		⑨ 모임에 가입하다		누가, 신입생	노조, 동아 리, 동호회	
		⑩ 좋아하다		무엇, 귀걸 이, 옷, 가, 그 친구	마음	
		⑪ 잠을 자다		누가, 할머니	자리, 잠자리	일찍, 늦게
3	NP1이/가 NP2을/를 들다	⑫ 적금이나 보험을 하다			보험을, 적금을	
		⑬ 결혼을 하다		누가	장가	
		⑭ 남을 위하여 일을 하다			시중, 역성, 편	
4	NP1이/가 NP2이/가 들다	⑮ 생기다		누가, 아이, 인간, 가축	버릇, 습관, 병, 철	
5	NP1이/가 NP2(으) 로 들다	⑯ 밖에서 안으로 이 동하다		그, 그 직원	어디로, 고을, 방, 안, 집	

표에 제시된 구문 유형을 다시 정리하면 (13)과 같다.

- (13) ㄱ. NP이/가 들다  
 ㄴ. NP1이/가 NP2에 들다  
 ㄷ. NP1이/가 NP2을/를 들다  
 ㄹ. NP1이/가 NP2이/가 들다  
 ㅁ. NP1이/가 NP2(으)로 들다

이 구문 유형에 따르면 현대국어에서 ‘들’ 앞에 위치할 수 있는 조사로는 주격조사, 처격조사, 대격조사, 향격조사가 있다.

위의 표에서 ‘들’의 원형의미는 ㉞, ㉟에 제시되어 있다. 이는 각각 (13ㄴ)과 (13ㅁ) 구문으로 실현된다. 즉, 이 경우 ‘들’의 선행 조사는 처격조사 ‘-에’와 향격조사 ‘-(으)로’이다. 중세국어 문헌들에서 ‘들’은 처격조사 ‘-에/에/이/의’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13ㄴ)의 구문이 가장 일반적인 구문이 된다. 향격조사 ‘-로/으로/으로’와 함께 사용되는 (13ㅁ) 구문과 같은 예도 발견되지만 처격조사와 함께 나타나는 예만큼 많지 않다. 처격이나 향격조사가 올 자리에 대격조사 ‘-을/를’이 온 예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sup>8)</sup>

(14)는 ‘들’이 처격조사와 함께 쓰인 예이고, (15)는 향격조사 ‘-로/으로/으로’와 함께 쓰인 예이다.

8) ‘들’이 참여한 합성동사 ‘드러가, 드러오-’ 등은 대격과 함께 쓰인 예가 발견된다.

- (1) ㄱ. 피흘 드러가니 涅髮 말라 鬢頭虛 1 니르니이다 <月釋 25:92a>  
 ㄴ. 나라시 가온대 싸사속에 굴이 잇서 삼십 리를 드러가도 싯흘 보지 못히고 <사민필지>
- (2) ㄱ. 프른 피호로 百里를 드러오니 비레 그즈니 방하고와 호와과 근도다(蒼山入百里 崖斷如杵臼) <杜詩 6:2a>  
 ㄱ'. 프른 피호로 百里를 드러오니 비레 그즈니 방하고와 호와과 ㄹ도다 <杜重6:2a>
- (3) 공교이 그 날 아침에 리강령집을 드러서는 시각에 그 모친은 응진을 향하고 써나려고 뒤문을 막 느셔든 츠이라 <행라도>

그러나 이 경우, 대격으로 나타난 부분을 잘 살펴보면, (1ㄱ)과 (3)은 정말 ‘드러가고 드러서는 대상’이지만 (1ㄴ)과 (2)는 ‘드러가고 드러온 정도’를 수량화하여 나타낸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똑같이 대격으로 실현되었다고 해도 이 두 경우는 달리 파악해야 한다.

- (14) ㄱ. 외똥(外道) 삼득먼(三億萬)이 왕(王)사 알핀 드라 말이 재야 솟두버리디니 <월곡 157>  
 ㄴ. 이 地獄에 아니 들어 지이다(今唯願我不墮此獄) <월석 7:14>  
 ㄷ. 또 새 스무나마니 나라 지옥 들어늘(復有雀數十飛入其幕) <鰾小 9:25>  
 ㄹ. 또 새 두어 열히 나라 그 집의 들거늘 <小學 6:22b>
- (15) ㄱ. 三摩地를 取코져 흥딘덴 實로 聞中으로 들리이다 <楞嚴 6:63b)><sup>9)</sup>  
 ㄴ. 브르미 현 굼그로 드러 모기 세오 어귀 불라 주글 듯 흥거든 <救簡 6:81a>

(14ㄱ)은 “왕의 앞에 들어”라는 의미인데 ‘드라’라고 써야 할 것을 ‘드라’라고 써 모음조화를 어기고 있다. (14ㄴ)은 “(하늘뿐 아니라) 지옥에(도) 들어가지 못하길 바란다”는 소망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들어 지이다’는 ‘들가지이다’에서 ‘ㄱ’이 약화된 것이다. (14ㄷ)은 “또 새 스무 마리 남짓이 날아 집에 들어오니”의 의미이다. (14)의 ‘왕의 앞’, ‘지옥’, ‘집’은 모두 처소를 나타내므로 처격 조사와 결합한 것이 아주 자연스럽다. 또한 이 예들에서의 ‘들-’은 모두 실제적인 이동의 의미를 나타낸다.

(15ㄱ)은 “실로 들음 가운데로 들어가야 합니다” 정도의 의미이고, (15ㄴ)은 “현 구멍으로 들어와” 정도의 의미이다. (15ㄱ)의 경우 ‘들-’이 다소 추상적인 의미로 사용된 듯하다. (15ㄴ)의 경우 ‘들-’이 “구멍의 입구에서 내부에 이르기까지의 경로를 통과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개화기부터 현대국어에 이르면서 ‘들-’은 더 다양한 조사들과 결합하게 되었다. (16)은 대격조사 ‘-을/를’과 함께 쓰인 예인데, 위의 (13ㄷ) 구문에 해당한다.

- (16) ㄱ. 합창 동아리를 들다.

9) 이 예문은 다음을 언해한 것으로 보인다.

意使從聞思修入三摩地者 <楞要:837b>

여기서 ‘聞思修’는 “불법을 구할 때 갖추어야 할 세 가지 덕목”인데 ‘三摩地’에 이르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聞中으로 들리이다’는 “들일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가야 한다” 혹은 “실로 들음 가운데로 들어가야 합니다”의 의미로 보인다.

- ㄱ!. 합창 동아리에 들다.
- ㄴ. 자동차 보험을 들다.
- ㄴ!. 자동차 보험에 들다.
- ㄷ. 아무래도 나는 어머니 편을 들 수밖에 없었다.
- ㄷ!. \*아무래도 나는 어머니 편에 들 수밖에 없었다.
- ㄹ. 장가를 들다.
- ㄹ!. \*장가에 들다.
- ㅁ. 그 노총각이 우리 집에 세를 들 지 3년 만에 결혼을 한다.
- ㅁ!. \*그 노총각이 우리 집에 세에 들 지 3년 만에 결혼을 한다.

(16ㄱ, ㄴ)의 경우, 대격조사 ‘-을/를’을 (16ㄱ!, ㄴ!)처럼 처격조사 ‘-에’로 바꾸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하지만 (16ㄷ, ㄹ, ㅁ)의 경우 대격조사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격조사는 없다. (16ㅁ)과 같은 예는 임흥빈(2006)에서 제시되지 않았는데 매우 독특한 ‘-에 세를 들-’이라는 표현이다. 독특한 예라고 할 수 있다. (16)의 예들을 살펴보면 모두 추상적인 의미로 쓰인 ‘들-’이다.

그런데 현대국어에 들어서 ‘들-’과 결합할 수 있는 조사도 다양해지고, ‘들-’의 의미도 더 많아졌지만 정작 그 원형적인 의미 나타내는 ‘들-’은 쓰임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즉, ‘들-’은 더 이상 “밖에서 안으로 이동하다”라는 의미로 잘 사용되지 않는다. ‘들-’이 (13ㄴ)의 구문으로 나타나도 “이동”의 의미는 아닐 가능성이 많으며, (13ㅁ)의 구문으로는 아예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 2. ‘들-’의 선행 명사와 ‘들-’의 의미

### 1) ‘들-’의 사전 풀이

‘들다’에 대한 『표준국어대사전』과 『연세 한국어 사전』<sup>10)</sup>의 기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0) 이하 『표준국어대사전』은 《표준》, 『연세 한국어사전』은 《연세》로 칭한다.

《표준》	《연세》
<p>동사</p> <p>i. 「…에, …으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밖에서 속이나 안으로 향해 가거나 오거나 하다.</li> <li>2. 빛, 별, 물 따위가 안으로 들어오다.</li> <li>3. 방이나 집 따위에 있거나 거처를 정해 머무르게 되다.</li> <li>4. 길을 택하여 가거나 오다.</li> <li>5. 수면을 취하기 위한 장소에 가거나 오다.</li> </ol> <p>ii. 「…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어떤 일에 돈, 시간, 노력, 물자 따위가 쓰이다.</li> <li>2. 물감, 색깔, 물기, 소금기가 스미거나 배다.</li> <li>3. 어떤 범위나 기준, 또는 일정한 기간 안에 속하거나 포함되다.</li> <li>4. 안에 담기거나 그 일부를 이루다.</li> <li>5. 어떤 처지에 놓이다.</li> <li>6. (‘눈’, ‘마음’ 따위의 뒤에 쓰여) 어떤 물건이나 사람이 좋게 받아들여지다.</li> <li>7. 어떤 일이나 기상 현상이 일어난다.</li> <li>8. (주로 ‘…(에) 들어, 들자’ 꼴로 쓰여) 어떠한 시기가 되다.</li> </ol> <p>iii. 「…에, …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어떤 조직체에 가입하여 구성원이 되다.</li> </ol>	<p>I.</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밖에서 안으로 가거나 오다.</li> <li>①㉡ (어떠한 길에) 들어서다.</li> <li>②㉠ (집이나 방에) 거처를 정하고 머무르다.</li> <li>②㉡ (자기 위해) 잠자리에 눕다.</li> <li>③ (누가 중간에) 끼이다, 중재하다.</li> <li>④㉠ (어떤 단체의) 구성원이 되다. 가입하다.</li> <li>④㉡ (이미 조직된 모임에) 가입하다.</li> <li>⑤ [주로 ‘들어 있다’의 꼴로 쓰이어] (안에) 담기거나 섞이거나 하다.</li> <li>⑥ (일정한 범위나 기준 안에) 끼이다.</li> <li>⑦ (어떤 처지나 상태에) 놓이거나 빠지다.</li> <li>⑧㉠ 새로 식구가 되다.</li> <li>⑧㉡ (집에 도둑 등이) 들어와 해를 끼치다.</li> <li>⑨㉠ (빛 등이 일정한 범위에) 미치다.</li> <li>⑩ (안에 바람 등이) 들어가다.</li> <li>⑪ (물이나 바닷물이) 일정한 공간안으로 밀려 들어오다.</li> <li>⑫ (마음이나 기분에) 맞다.</li> </ol> <p>II.</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힘, 비용, 노력 등이) 필요하게 되거나 쓰이게 되다.</li> <li>② (물감, 빛깔 등이) 묻거나 스미다.</li> <li>③㉠ (뿌리나 열매 따위가) 살이 올라</li> </ol>

《표준》	《연세》
2. 적금이나 보험 따위의 거래를 시작하다.	<p>꺾어지다.</p> <p>③㉠ (속이나 안에 무엇이) 생겨나 있다.</p>
iv. 어떤 때, 철이 되거나 돌아오다.	④ (어떤 상태가) 이루어지다.
<p>v. 「...이」</p> <p>1. 잠이 생기어 몸과 의식에 작용하다.</p> <p>2. 나이가 많아지다.</p> <p>3. 과일, 음식의 맛 따위가 익어서 알맞게 되다.</p> <p>4. 몸에 병이나 증상이 생기다.</p> <p>5. 의식이 회복되거나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일다.</p> <p>6. 버릇이나 습관이 몸에 배다.</p> <p>7. 아이나 새끼를 가지다.</p> <p>8. 식물의 뿌리나 열매가 속이 단단한 상태가 되다.</p>	<p>III.</p> <p>① (생각이나 느낌 등이) 일어나다.</p> <p>② (어떤 능력이나 버릇 등이) 몸에 배다.</p> <p>③ (병이나 병적 증세가) 생기다.</p> <p>④ (정)이 생기다.</p> <p>⑤ (나이가) 많아지다.</p> <p>⑥ (잠)이 이루어지다.</p> <p>⑦ (익혀 먹는 음식이나 열매 같은 것이) 제맛이 생기다.</p> <p>⑧ (제정신이) 돌아오다.</p> <p>⑨ (귀신 등에) 씌이다.</p> <p>⑩ (어떠한 상태가) 되다.</p>
vi. 「...을」 남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다.	IV. (어떤 때나 철이) 되거나 돌아오다.
vii. 「...에 ...을」 돈을 내고 셋집을 얻어 살다.	V.
보조동사	① (어떤 일이나 행동을) 하다.
1. (동사 뒤에서 ‘-려(고) 들다’, ‘-기로 들다’, ‘-자고 들다’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애써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함을 나타내는 말.	② (장가를) 가다.
2. (동사 뒤에서 ‘-고 들다’ 구성으로	③ (돈 등을 불리려고 저금 따위에) 가입하다.
	④ (돈을 내고) 셋집에 들어가 살다.
	⑤ (길을) 택하다.
	VI. [‘~(에) 들어, 들자’의 꼴로 쓰이에 어떠한 시기가 되어서.

《표준》	《연세》
<p>쓰여)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거칠고 다그치듯이 함을 나타내는 말.</p>	<p>VII.</p> <p>① [동사의 ‘~려고, ~자고’ 등의 꼴 뒤에 쓰이어]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다.</p> <p>② [동사의 ‘-고’ 꼴 뒤에 쓰이어] 그 행동을 다그쳐 하다.</p> <p>x1① [‘길(이) 들다’의 꼴로] (짐승이나 사람이 부리는 데에 익숙해져서) 잘 따르거나 부리기 좋게 되다.</p> <p>② [‘길(이) 들다’의 꼴로] (오래 매만져서 물건이) 윤기가 나거나 다루어 쓰기 좋게 되다.</p> <p>x2 [‘맛(이) 들다’의 꼴로] (무엇에) 재미를 붙이다.</p> <p>x3 [‘물(이) 들다’의 꼴로] 특정한 사상, 생활 양식, 행실 등의 영향을 받아 동화되다.</p> <p>x4① [‘바람(이) 들다’의 꼴로] (무 위가) 물기가 빠지고 공기 구멍이 생기다.</p> <p>② [‘바람(이) 들다’의 꼴로] 허황한 생각이나 남녀 관계로 마음이 들뜬 상태가 되다.</p> <p>x5 [‘철(이) 들다’의 꼴로] 사람이 자라서 사리를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게 되다.</p>



《표준》	《연세》
	x6 I ① [‘힘(이) 들다’의 꼴로 힘이 많이 쓰이다. ② [‘힘(이) 들다’의 꼴로 (일을 하는 것이) 쉽지 않고 어려워지다. II [‘힘(이) 들다’의 꼴로 (상황이 형편이) 곤란해지다.

이 두 사전의 풀이만 보아도 ‘들-’의 의미가 얼마나 다양하고 복잡한지 금방 알 수 있다. 또한, 이 두 사전에서 파악하고 있는 ‘들다’의 의미가 모두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다. 《표준》에서 ‘들-’의 뜻으로 풀이하고 있는 “남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다”, “아이나 새끼를 가지다”의 뜻이 《연세》에는 나타나지 않고, 《연세》에서 풀이하고 있는 “(누가 중간에) 끼이다, 중재하다”, “새로 식구가 되다”, “(집에 도둑 등이) 들어와 해를 끼치다”, “(어떠한 상태가) 되다”, “(길을) 택하다” 등의 뜻은 《표준》에 나타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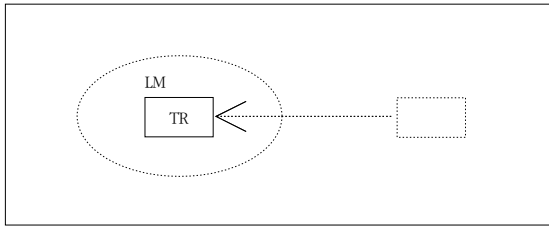
『우리말 큰사전』의 기술은 다음과 같다.

- ① 들다. 들어가다. 들어오다.
- ② 귀신이나 병이 들다.

『우리말 큰사전』의 풀이를 보면, 《표준》이나 《연세》보다 지나치게 간략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서 ‘들-’이 중세국어부터 현대국어로 오면서 그 뜻이 더 분화, 확장되었기 때문에 중세국어 시기에는 그 뜻이 많지 않았던 것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말 큰사전』의 풀이가 미흡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중세국어 시기에 ‘들-’은 이미 추상적인 의미를 표현하는 데 활발하게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2) ‘들-’의 의미 확장

앞서 간단히 언급한 바 있지만, ‘들-’의 원형적인 의미는 “구체적 경계 내부의 장소로 구상물이나 사람, 유정물 등이 이동하는 것”<sup>11)</sup>이라고 할 수 있다. 홍달오(2010)은 이를 다음과 같은 도식으로 설명했다.<sup>12)</sup>



〈들다〉의 원형 공간구조(홍달오 2010:134)

그런데 3.1.에서 설명한 것처럼, 현대국어에서 ‘들-’이 원형적 의미로 사용된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김창섭(1996)도 현대국어에서 ‘들-’은 구체적인 장소 이동의 뜻으로는 소극화되었고, 그 자리를 ‘들어가다, 들어오다’가 대신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구체적 의미로 쓰일 때는 과정이 아닌 결과를 표현하고, 대체로는 추상적인 의미를 표현한다고 했다. 홍달오(2010)은 ‘들-’이 의미자질상 [+위치 변화]와 [+방향성]은 두드러지지만 이동의 [+경로성]은 그다지 부각되지 않는다고 했다. 홍달오(2010)의 의견을 받아들인다면, 현대국어에서 ‘들-’의 자리를 ‘들어가, 들어오-’가 대신하는 것도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들-’이 원래 [+경로성]이 부각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힘들다. 향격조사와 결합하여 쓰인 경우 “경로”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sup>13)</sup>

이 ‘들-’의 의미는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된다.

11) 홍달오(2010)의 정의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12) ‘이동 가능하거나 위치 변화할 수 있는 장면 내의 실체(TR: trajectory)’가 ‘위치 변화의 배경이 되는 실체인 내부 공간(LM: landmark)’으로 이동하는 것을 나타낸다.

13) 위의 (15-)의 예가 그러하다.

G. Lakoff(1987)는 언어 의미가 물리적인 실제 세계에 대한 인간의 신체 경험 패턴으로부터 비롯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임지룡(1996: 250-251)은 Heine et al.(1991: 48)이 제안한 개념영역의 일반적인 확장 방향을 바탕으로 다의어의 의미 확장 양상을 정리했다. 이를 요약적으로 제시하면 (17)과 같다.

- (17) ㄱ. 사람 → 짐승 → 생물 → 무생물  
       나. 구체성 → 추상성  
       다. 공간 → 시간 → 추상  
       르. 물리적 → 사회적 → 심리적  
       미. 일반성 → 비유성 → 관용성  
       브. 내용어 → 기능어

즉, 원형적인 ‘들’은 ‘사람의 구체적, 물리적 공간 이동을 나타내는 내용어’인데 이를 바탕으로 ‘짐승, 생물은 물론 무생물의 위치 변화’도 나타낼 수 있게 되고, ‘시간적, 추상적 변화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물리적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적 심리적 변화’를 포착할 수 있게 되고, ‘비유적, 관용적’으로 사용되게 되며 ‘보조동사로 사용되는 등 기능어로서의 자격’도 얻게 된다.

이와 같은 ‘들’의 의미 확장은 ‘들’과 결합되어 사용되는 ‘NP’의 의미와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다. ‘들’의 의미 차이를 변별할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들’의 논항으로 등장하는 ‘NP’들이기 때문이다.

### 3) ‘들’의 선행 NP와 ‘들’의 의미

‘들’과 어울려 쓰일 수 있는 NP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특히 근대국어 이후로 올수록 다양화된다.

#### ㉞ 집단, 단체, 무리 류

‘들’에 선행하는 NP가 ‘사람들의 모임’인 “집단, 단체, 무리”를 의미하는 경우, ‘들’은 “소속되다, 구성원이 되다”의 의미를 갖는다. (18)이 그 예이다.

- (18) ㄱ. 들흔 한 德根源을 시물 씨오 세흔 正定聚에 들 씨오(二者 殖衆德本, 三者 入正定聚.〈法華:61a20〉)〈釋詳21:51a〉  
 ㄴ. 네 우리 성죄 니어와 성흔의 당의 들기를 원흐노라 흐는 하괴 겨시니  
 〈警問,22a〉  
 ㄷ. 문예부에 들기로 했다.  
 ㄸ!. 문예부를 들기로 했다.

(18ㄱ)은 “셋은 정정취에 드는 것이고”의 의미이다. ‘정정취’는 “반드시 성불할 수 있는 사람들의 무리”를 일컫는 말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성불할 수 있는 사람들의 무리에 소속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8ㄴ)은 “성흔의 당에 들기를 원한다”는 뜻이다. ‘성흔의 당’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뜻하므로 이 역시 “성흔의 당의 구성원이 되기를 원한다”는 의미로 해석 가능하다. 현대국어에서는 (18ㄷ)과 같이 실현된다. 특이한 점은 NP가 처격이 아닌 대격으로도 실현 가능하다는 것이다. ‘들-’의 원형적 의미가 “물리적 변화”를 형상화했다면 이 경우는 “사회적 변화”를 형상화한 것이다.

#### ㉔ (추상적인) 범위, 기준 류

NP가 추상적이지만 정확한 경계 범위, 기준을 나타내는 경우, ‘들-’은 “진입하여 포함되다”의 의미를 갖게 된다. (19)가 그 예이다.

- (19) ㄱ. 이 性이 두려이 이러사 어루 三賢을 건네퍼워 ±聖에 들리라(此性圓成 可超三賢 入±聖矣 〈楞要:855c12〉)〈楞嚴8:40a〉  
 ㄴ. 이번 시험에서 3등 안에 들었다.

(19ㄱ)은 “열 명의 성인에 들 것이다”의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열 명의 성인 중 한 명으로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뜻이다. (19ㄴ)은 현대국어의 예이다. ‘열 명의 성인’과 ‘3등’은 ‘들-’의 주체에게 진입하고 싶은 일종의 경계이다. 이 경우 NP는 항상 ‘들-’의 주체가 원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고, 긍정적인 의미를 띤다. 의미 확장의 양상에서 ‘구체성→추상성’의 변화 방향과 일치하는 흐름을 보여주는 예이다.

NP가 추상적인 상황, 경지를 묘사하는 경우, ‘들’은 “긍정적인 지점에 도달하다” 혹은 “부정적인 지점 빠지다”의 의미로 사용된다. (20)이 그 예이다.

- (20) ㄱ. 그곳에 날으러 데자게 같오샤되 비러 미혹에 들물 면하라 하고 <예수성 교전서\_로스>  
 ㄴ. 썩여 기도하여 시험에 들지 안케 하여라 <신학월보1:176>  
 ㄷ. 如來 오닐 밭 中에 無餘涅槃에 들리라 <釋詳13:34a>  
 ㄹ. 그의 학문은 경지에 들었다.

(20ㄱ, ㄴ)은 NP가 부정적인 의미이다. (20ㄱ)은 “미혹에 들을 면하라”라는 의미로 “미혹에 빠지지 말라”로 이해할 수 있고, (20ㄴ)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여라”라는 의미인데 “시험에 실패하여 실수하지 말아라”라는 의미이다. (20ㄷ, ㄹ)의 NP는 긍정적인 의미이다. (20ㄷ)은 “무여열반에 들 것이다”라는 의미이다. (20ㄷ)의 ‘무여열반’과 (20ㄹ)의 ‘경지’는 “일정 기준 이상의 지점”을 가리킨다. 그래서 (20ㄷ)은 “무여열반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로 이해할 수 있고, (20ㄹ)은 “경지에 도달하였다”로 이해할 수 있다.

㊦ 공간적으로 비유된 추상적인 실체

NP가 실재하는 공간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추상적인 실체를 가리키는 경우이다. 불경류에서 자주 등장하는 비유법이다. (21)이 그 예이다.

- (21) ㄱ. 如來 慈悲로 室 사막시고 柔忍으로 옷 사막시고 法空으로 座 사막시니 慈悲室에 들면 모미 잇는디 이소미오 <月釋15:57a>  
 ㄴ. 法이 곧 이 衆인들 아라 둘 아닌 法門에 들면 어느 고티요미 이시료 <法華1:240b>

(21ㄱ, ㄴ)에는 각각 ‘慈悲室’과 ‘法門’이 나타난다. ‘室’과 ‘門’ 때문에 마치 공간적인 실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21ㄱ)의 ‘慈悲室’은 “자비심을 부처의 방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고, (21ㄴ)의 ‘法門’은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는 문이라는 뜻으로, 부처의 교법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일반성을 가진 동사 ‘들-’이 비유적 표현을 나타내는 데 쓰임으로써 의미가 확장되었다.

㉞ 기운, 감정, 생각 류

‘들-’에 선행하는 NP가 ‘기운, 감정, 생각’ 류이면 ‘들-’은 “느끼다, 사무치다” 등으로 해석 가능하다. (22)가 그 예이다.

(22) ㄱ. 설움이 骨髓에 들고 울어 肝腸을 쓴출띠니 <女四2:15a>

ㄴ. 슬픈 생각이 들다.

(23) ㄱ. 마음이 들다.

ㄴ. 마음에 들다.

(22-ㄱ)은 “설움이 골수에 들고”라는 뜻인데, “설움이 골수에 사무치고”의 의미이다. 현대국어의 ‘슬픈 생각이 들다’와 같은 문장에서 사용된 ‘들-’이 그 예이다. 의미 확장 양상 중 ‘물리적→사회적→심리적’ 확장 양상을 엿볼 수 있다. (23-ㄱ)도 (22)와 같은 유형의 예이다. 그런데 선행하는 NP에 (23-ㄱ)과 같은 명사 ‘마음’이 와도 문형을 달리 하여 (23-ㄴ)과 같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 두 문장의 의미는 다르지만 두 문장에 사용된 ‘들-’은 유사한 의미 확장의 과정을 겪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들-’이 ‘기운, 감정, 생각 류’ NP와 결합하는 예는 중세국어 시기에는 잘 발견되지 않고, 근대국어 이후 시기에 발견된다.

㉟ 질병, 귀신 류

NP 자리에 ‘질병, 귀신 류’의 명사가 오면 ‘들-’은 “NP에 의해 지배당하다”라는 의미를 갖게 된다. (24~25)가 그 예이다.

(24) ㄱ. 슬허 어위어 병 들었더니 죽을적의 계집으로 더브러 닐오되 <續三重 34a>

ㄴ. 저근 즉 종신토록 병이 들고 큰 즉 인흐야 병드러 몸을 믹치니 <두경 11a>

㉔. 값기가 들었다.

(25) 귀신이 든 것 같았다.

(26) 형역 후에 나온 독기 간장이 허하면 눈에 들고 폐장이 허하면 음과 버주미 되고 <두창하51b>

(24)는 NP 자리에 ‘질병’류가 온 것이다. 중세국어 문헌의 경우 ‘병 들다’는 나타나는데, ‘병이 들다’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 ‘병들다’가 먼저 존재했고, 이를 ‘병이 들다’로 나누어 쓰게 되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모두 “병에 걸리다, 병에 의해 휘둘리다, 지배당하다”라는 의미라고 판단할 수 있다. (25)는 NP 자리에 ‘귀신’이 왔다. “귀신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는 것 같았다”는 의미이다. (26)은 “독기가 간장이 허하면 눈에 들고”로 해석 가능하데 “간장이 허약하면 독기가 눈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라는 의미이다. 이 또한 질병과 관련된 것이라 함께 제시하였다.

#### ㉕ 시간 류

NP 자리에 ‘시간’ 관련 명사가 오면, NP는 시간적인 경계 지점을 나타내고, ‘들’은 그 “경계 지점으로부터의 시간 경과”를 나타낸다. 즉, “NP가 시작된 이래”의 의미가 된다. (27)이 대표적인 예이다.

(27) ㄱ. 밤 들어든 자 옷과 썩를 반드시 삼갈디니라 <小學1:14a>

ㄴ. 4월에 들어서만 이익금이 두 배로 늘었다.

(27ㄱ)은 “밤이 깊으면”의 의미이고, (47ㄴ)은 “4월이 시작되고서부터”의 의미이다. 시간을 나타내는 ‘밤’과 ‘4월’은 경계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밤들’은 신라 향가 <처용가>에도 등장한 바 있다. 의미 확장 양상 중 ‘공간적 → 시간적’ 확장 양상을 보여준다.

#### ㉖ 소모되는 명사류

현대국어에는 ‘힘, 시간, 돈’ 등 소모되어 없어지는 NP류가 ‘들’과 함께 사용되는데 이 때 ‘들’은 “소용되다”의 의미이다.

- (28) ㄱ. 공부에는 힘과 시간과 돈이 든다.  
 ㄴ. 기후가 더운 고로 힘드느 일하기가 괴롭고 어려운 식둠에 <독립신문>

(28ㄱ)은 “힘과 시간과 돈이 소용된다/ 필요하다”의 의미이다. (28ㄴ) 역시 마찬가지이다. ‘힘들-’은 중세국어 당시에는 발견되지 않는데, 19세기부터는 다수 발견된다. 그런데 ‘힘’과 ‘들-’ 사이에 조사가 끼어있는 형태는 잘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㉔ 기상 현상 류

NP가 기상 현상류를 나타내면 ‘들-’은 “일어나다, 들이닥치다”의 의미를 갖는다. (29)가 그 예이다.

- (29) ㄱ. 내 빅성의 장마와 가뭄과 흉년 들면 쓰이기를 위함이라 <유경기흥충도감 사수령등운음>  
 ㄴ. 풍년이 들어서 마을 잔치를 했다.

(29ㄱ)은 “장마와 가뭄과 흉년이 들면”의 뜻인데, “장마와 가뭄, 흉년이 찾아오면/ 닥치면”의 뜻이다. (29ㄴ) 역시 “풍년이 찾아와서/ 되어서”의 뜻이다.

㉕ 기타

그 외에도 NP 자리에 올 수 있는 명사들은 많이 있다. 딱히 유형화하기 힘든 것들도 많이 있다.

- (30) 다른 사람이 당가 들고져 현대 <續三重열15a>  
 (31) 迷미蹙후호매 물드로물 낚디 마오 아릭 <육조中23b>  
 (32) 순화네 집에 세를 들다.  
 (33) 이에 데즈 있는 곳에 니르러 잡드럿습을 보시고 <훈아진언30a>  
 (34) 학자금 마련을 위해 적금을 들었다.

(30~34)의 예도 각각 “혼인하다”, “배다”, “세를 내고 머물다”, “수면 상



태에 이르다”, “적금 제도에 가입하다” 등의 의미로 바꾸어 이해할 수 있지만 언어 관계로 파악하는 것이 더 용이해 보이는 경우가 많다.

백미현(2010)은 ‘들-’의 의미를 ‘공간영역’과 ‘추상적 영역’으로 나누어 파악하고, ‘들-’을 내부적 관점과 외부적 관점에서 모두 바라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의미값의 경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 홍달오(2010)은 ‘들-’의 의미를 ‘진입, 포함, 침윤, 축적, 소모, 수용’의 여섯 가지 의미로 나누어 파악했다. 본고에서 파악한 의미들도 이처럼 재유형화하고, 의미망을 파악한다면 ‘들-’의 전체 짜임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IV. 결론

‘들-’은 중세국어에서 “入”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들-’의 파생어로는 사동 접사 ‘-이-’와 결합해 형성된 사동사 ‘드라-’와 피동접사가 결합해 형성된 피동사 ‘들이-’가 있다. ‘드라-’는 후에 ‘들이-’로 변했고, ‘들이-’는 ‘들리-’로 변했다.

‘들-’은 다양한 합성동사 형성에 참여한다. ‘들-’이 선행요소로 참여하는 합성동사에는 ‘예로는 ‘드러가-, 드러오-, 드러앉-, 드러서-, 드리쉬-(吸), 드리비취-, 드리타-, 드리혀-’ 등이 있고, 후행요소로 참여하는 예로는 ‘나들-/나들-, 주러들-, 넘나들-, 밤들-’ 등이 있다. 그 외에 ‘드나들-’은 특이하게 ‘나-’와 ‘들-’이 결합한 후 ‘들-’이 다시 결합했다. [들-+나-+들-]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들-’의 구문 유형은 ㄱ. NP이/가 들다, ㄴ. NP1이/가 NP2에 들다, ㄷ. NP1이/가 NP2을/를 들다, ㄹ. NP1이/가 NP2이/가 들다, ㅁ. NP1이/가 NP2(으)로 들다’의 다섯 가지이다. 중세국어 시기에는 ‘들-’의 원형적 의미가 적극적으로 사용되어 ㄴ, ㅁ 유형이 자주 등장했으나 현대국어에 이르러서는 ‘들-’의 원형적 의미는 거의 사용되지 않게 되어 ㅁ 유형은 거의 사라졌고, ㄴ 유형도 ‘들-’의 파생적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에만 사용되게 되었다.

‘들-’의 원형적 의미는 “구체적 경계 내부의 장소로 구상물이나 사람, 유정물 등이 이동하는 것”이다. 이 원형적 의미에서 의미 확장이 이루어진다. 이 의미 확장은 ‘들-’에 선행하는 명사의 의미와도 관련을 맺고 있다. 그래서 ‘들-’에 선행하는 NP의 유형을 묶어보면, 다양한 ‘들-’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유형화하기 힘든 NP도 존재하는데 이 경우, 일종의 연어 구성으로 파악할 필요도 있다.

## 참고문헌

### 1. 사전

- 국립국어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원(1998), 『연세 한국어사전』, 두산동아.  
임홍빈(2006), 『(서울대 임홍빈 교수의)한국어 사전』, 랭기지플러스.  
한글 학회(1992), 『우리말 큰사전 4: 옛말과 이두』, 어문각.

### 2. 논저

- 김기혁(1998), 「국어문법에서 통사구조와 의미구조」, 『언어연구』 8, 경희대학교 언어연구소.  
김선희(1984), 「합성 동사의 의미 분석 - “떡다, 치우다, 들다, 제치다, 붙이다, 나(아)가다”를 중심으로」, 『한글』183, 한글학회.  
김완진(1980), 『鄉歌解讀法 研究』, 서울대학교 출판부.  
김창섭(1996), 『국어의 단어형성과 단어구조 연구』, 國語學叢書 21, 太學社.  
김호영(2009),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다의어의 교육 방안 - 주요 용언을 중심으로 -,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형배(1997), 『국어의 사동사 연구』, 박이정.  
박영순(1994), 「‘대다, 가다, 보다, 서다, 들다’의 의미에 대하여 - 새로운 사전 주석을 위한 시론」, 『한국어학』1, 한국어학회.  
백미현(2010), 「OUT과 IN 도식의 의미 확대 연구: 동사 ‘나다’와 ‘들다’의 경우」, 『담화와 인지』 17-3, 담화·인지언어학회.  
심재기·이기용·이정민 (2004), 『意味論序說』, 集文堂.  
유창돈(1971), 『어휘사 연구』, 宣明文化社.  
이선영(2006), 『국어어간복합어 연구』, 國語學叢書 53, 太學社.  
이익섭(1986/2000), 『국어학개설』, 學研社.  
임지룡(1992), 『국어 의미론』, 탑출판사.  
임지룡(1996), 「다의어의 인지적 의미 특성」, 『언어학』 18-1, 한국언어학회.  
임지룡(2009), 「다의어의 확장과 의미 확장의 분류 기준」, 『한국어 의미학』 28,

한국어의미학회.

조은정(2008), 「한일 공간 이동동사의 메타포적 고찰 - 「はいる」와 「들어가다/들어오다/들다」를 중심으로 -」, 『日語教育』46, 한국일본어교육학회.

홍달오(2010), 「動詞 ‘들다/나다’의 意味에 대한 認知言語學的 考察」, 『語文研究』38-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Heine, B., Claudi, U., Hünnemeyer, F. (1991), Grammaticalization: A Conceptual Framework,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Lakoff, G.(1987), Woman, Fire and Dangerous Things,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Taylor, J. R.(1989/1995), Linguistic Categorization: Prototypes in Linguistic Theory, Oxford: Clarendon Press.